

아동이 지각한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목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김경희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Mok Po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Kim, Kyung Hea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authority and the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0 children from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by MANOVA, the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 1) There were sex differences o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authority.
- 2) There was no differences between the sex o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 3) There were relationships o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전통적 공동사회가 해체되었고, 사회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 구조도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적인 핵가족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내부에 까지 영향을 주어 가족내의 권위구조나 의식구조 등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엄부자모의 교권을 약화시켜 전통적인 지위에 의해서는 더 이상 부모권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게 하였다. 우리아이는 부모의 말을 통 들으려 하지 않아요 라고 하소연 하는 부모들이 많아졌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慨叹하는 소리 또한 높다. 부모가 자녀를 지도함에 있어 권위를 잃게 되면 가정교육의 무질서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화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는 합리적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문헌에서는 아동의 사회화에 따른 부모의 영향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변인의 부모양육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다.

Symond(1939)이 부모양육행동을 지배와 복종, 수용과 거부로 구분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양육 행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Schaefer(1965)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자율-통제 그리고 애정-적대감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Maccoby와 Jacklin(1974)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애정, 통제, 권위의 세 차원으로 크게 구분된다 고 제시하였으며, Baumrind(1973)는 권위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등의 세 유형으로 부모양육행동을 구분하였다.

부모양육행동의 애정적 차원은 연구에서 수용, 지원, 친지, 애정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변인은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제시한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일치하게 나타났다(American & Burger, 1972 ; Romer & Pattengill, 1985 ; 풍인숙, 1978 ; 한종해, 1980 ; 이수연, 1985). 통제적 차원은 권력, 권위, 통제, 억압 등의 변인으로 명명하여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명령하거나, 어떤 규칙을 정하

고 이를 따르게 한다든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모양육행동의 통제적 차원은 변인의 명명에서부터 용어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Maccoby & Jacklin, 1974 ; Samb, 1978 ; Proudfit, 1983). 이는 통제적 차원을 설명하는 변인의 이름이 나타내고 있듯이 관찰가능한 변인과 잠재적 변인을 모두 통제적 차원에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역할 수행에 따라 나타나는 양육행동 중에서 공통으로 포함되는 변인이 애정행동과 통제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양육행동으로 조사한 변인 가운데 부모권위는 통제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변인이 아니며 애정적 차원에도 포함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김경희(1991)의 연구에서 아동이 부모의 애정을 느끼고 지각하게 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김경희(1991)는 부모권위가 잠재적 변인어서 관찰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연구가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같은 이유는 권위라는 변인이 한 차원으로서 형성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다차원적 구인아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권위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통합하여 부모권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행동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권리를 지니는 것으로서 부모의 책임과 자녀에 대한 의무수행, 부모의 역량,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 등)에 관한 아동의 평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효과적으로 지각되는가와 자녀가 부모를 권위 있게 지각하고 있는가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이 어떠하던 간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계

지각하고 있는가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녀의 행동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를 주체로 보고 부모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분석의 기본가정으로 하여 부모양육행동의 애정적 차원과 통제적 차원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어떠한가를 조사하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권위의 지각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양육행동의 지각에는 차이가 있는가?
- 3) 아동이 지각한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은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권위

부모의 권위는 자녀가 알지 못하는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가르치는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의 질서있는 행동양식을 가르치는 지도력이며, 한쪽 혹은 양쪽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를 가하는 능력으로 (McDonald, 1979), 부모-자녀 상호작용시 자녀의 지각에 의존하는 것이다(Rollins & Bahr, 1976).

부모-자녀관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유형은 자녀의 순응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부모의 지원에 대한 상호 보상교환이다. Richer(1988)와 Edwards와 Brauburger(1973)에 따르면 부모-자녀가 어떤 상호작용에서 행동을 교환할 때, 한쪽은 상대에게 보수나 처벌 혹은 만족이나 좌절을 주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부모가 보상과 처벌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지원을 주거나 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인지하게 되

면 교환적 권위가 내면화된다. 또한 자녀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문화등의 영향을 받아 부모의 역할에 따른 문화적 관습적 규범을 인지하게 되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합법적 권위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녀는 부모가 전통적으로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의 합법성을 부여 받고(Weber, 1947), 제도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지위적 특성에 의해 아동을 사회화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관이 부모의 합법적 권위를 형성하게 한다.

사회의 최초집단인 가족내에서 자녀는 부모의 애정, 보호, 지원 등 여러가지의 관심과 행동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인간관계를 영위해 나간다. 자녀의 초기 성장기에서 부모는 최초의 강화자이며, 지속적이고 유용한 모델이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자연스런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에게 사랑받고자하는 욕구는 반대로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정신작용은 자녀가 부모의 지시나 명령에 순응하는 행동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권위를 김경희(1991)는 일체적 권위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는 부모의 과거업적, 전문능력, 사회적 지위, 지도력, 판단력 등에 따라 형성되는 역량적권위를 들 수 있다. White(1959)는 부모가 특정분야에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각하게 되면 자녀는 그 분야에 관한 부모의 지시에 순응한다고 하였으며, Damon(1977)은 부모가 우수한 사람이고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도하고 명령할 수 있는 분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역량에 대한 지각이 부모의 권위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종합하여 보면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권위를 내면화하며 그 지각 요인에 따라 교환적 권위, 합법적 권위, 일체적 권위, 역량적 권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부모권위의 내면화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부모권위의 지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남·녀 아동의 지각이

다를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모양육행동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남·녀 아동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권위있는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성에 따라 차이 있는가를 조사한 Elder(1963)의 연구에 따르면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를 더 권위있게 지각한다고 하며 Smith(1970)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다고 한다.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성에 따라 차이 있는가를 분석한 김경희(1991)의 연구에서는 성에 따라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권위에 포함되는 각 차원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권위의 한 차원적인 합법적 권위개념을 조사한 Damon(1977)과 Tisak(1986), 김경희(1989)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권위와 아동의 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부모양육행동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방법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종혜, 1980). 부모양육행동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인 것처럼 이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자마다 다르게 양육행동을 구분하고 있다.

이를테면 Symond(1939)은 지배와 복종, 수용과 사부로 구분하였고, Baldwin(1955)은 민주적, 신체적, 이해적, 거부적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Schaefer(1965)는 애정과 적대, 자율과 통제로 구분하였다. 이외에 애정과 서부, 방임과 요구(Roe와 Siegelman, 1963) 그리고 온정과 냉정, 과보호와 방임, 허용과 제약, 안남과 태평(자재호와 이예영, 1974)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Rohner와 Rohner(1981)는 세계 186개의 표준비교문화표본(Standard Cross Cultural Sample)을 이용하

여 부모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애정적 차원과 통제적 차원의 부모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가장 영향을 주는 차원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연구들에서 부모양육행동이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 있게 제시되었지만 부모의 애정과 통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두 가지의 애정적 차원과 통제적 차원을 부모양육행동으로 선정하였다.

부모양육행동의 애정적 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친밀감을 갖고 접촉하며 칭찬, 격려 등의 긍정적 강화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Becker, 1964, Schaefer, 1959, Symonds, 1939). 통제적 차원은 연구들에서 개념상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사용하는 행동(Peterson과 Rollins, 1987)으로 정의하였다.

가정보다 나은 학교는 없고 부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교사는 없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학교교육과는 달리 계획성이 별로 없고 그 방법도 부모와의 접촉이 주가 되며 주로 보법, 원조, 협력, 설득, 훈계, 비평, 암시, 금지, 격려, 치벌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유안진, 1981). 자녀는 부모행동에 대한 지각에 의해 반응을 나타내므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행동과 통제적 행동은 자녀의 행동이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 행동이나 기대, 표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애정을 적게 경험한다는 선형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Zussman, 1978).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차별적 사회화에 관한 Block(1983)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모두 남아에게 성취와 경쟁을 강조하고, 특히 아버지는 남아에게 권위적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남아가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남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더 심한 치벌을 가하며, 여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Lynn, 1974).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결과만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한다고거나 부모가 여아를 더 애정적으로 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Rohner(1986)가 시사하였듯이 문화권에 따라 남아와 여아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과 같이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대 교육의 영향이나 가치관의 변화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이수연, 1985)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양육행동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애정과 통제에 대한 성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사회적 인간으로 양육하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며 자녀에게 내면화된다. 이러한 과정은 부모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쌍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부모가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서 자녀에게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고 평가해서 부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권위는 자녀가 알지 못하는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가르치는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Edwards와 Brauburger(1973)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주 보상을 받으면 부모의 뜻에 따르는 행동을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한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적 행동이 많다고 지각한 자녀는 부모를 더 권위있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자녀에게 부모가 보상과 처벌을 임의로 선택할 능력이 있고 자녀의 어떤 면을 지원하거나 칠회할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면 부모권위에 의존하게 되어 부모를 더 권위있게 지각한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적 행동이 부모권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Cartwright(1959)의 설명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행동은 자녀에게 순응이나 저항이 나하는 심리적 힘을 야기시킨다고 한다. 부모의 통제에 순응을 보이는 자녀는 부모를 권위있게 지각할 것이고 반대로 저항을 나타내는 자녀는 부모를 권위있게 지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권위가 부모의 통제적 행동과 관계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실시한 Elder(1963)에 따르면 부모가 통제적이고 자녀가 부모의 합법적 권위를 인지하게 되면 자녀의 순응이 많다고 한다. 이는 부모의 통제적 행동이 많을 수록 부모권위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mith(1970)도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를 권위있게 지각하면 할수록 부모의 통제에 대한 순응이 많다고 하여 부모권위에 대한 영향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설명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차이있을 것임을 가정할 수 있고, 부모권위에 대한 지각이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지각과 관계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1개의 국민학교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 45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38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남·녀 아동별 분포는 남자아동이 185명이고 여자아동이 195명이었다.

5학년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시기의 아동이 비교적 부모의 행동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경험하고 비교적 타인에 대한 평가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김경희(1991)의 척도가 5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부모권위척도와 부모

양육행동척도이다.

1) 부모권위척도

부모권위척도는 김경희(1991)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권위척도는 교환적 권위, 역량적 권위, 일체적 권위, 합법적 권위 등으로 구분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8이다. 각 차원의 신뢰도 계수는 교환적 권위가 .81 역량적 권위가 .67 일체적 권위가 .71 합법적 권위가 .80이었다.

2) 부모양육행동척도

부모양육행동척도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애정적 차원과 통제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오성심과 이종승(1982), 한종혜(1980), 공인숙(198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각각 10문항씩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록 검증하였다. 애정적 요인의 고유치가 4.8이었고 통제적 요인의 고유치가 3.3이었으며, 각 차원에 포함되는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애정적 차원의 계수는 .86 이었고, 통제적 차원의 계수는 .75였으며, 전체 부모양육행동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7이었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권위의 지각과 부모양육행동의 지각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One way MANOVA를 실시하였다. 다변인 변량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종속변인의 상호관련성 검증은 Bartlett test를 실시하였고,

독립변인의 동변량성은 Box's M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정상확률도면(normal probability plot)을 산출하였다. 각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추후검증은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을 산출하였다.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자료처리는 SPSS PC⁺와 FORTRAN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권위의 차각

문제 1)의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권위의 차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MANOVA를 실시하였다. 변인에 관한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권위에서 다변인 변량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증하는 Bartlett test의 결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인들 간의 관계가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채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인에 대한 기본가정은 성립되었다. 독립변인인 아동의 성변인의 동변량성

<표 1> 부모권위와 아동의 성에 관한 기본가정 검증

	변 인	Value	P
Bartlett	부모권위	168.67	.000
Box's M	아동의 성	21.55	.019

<표 2> 부모권위지각에 대한 남·녀 아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부 모 권 위	남		여		전 체	
	M	SD	M	SD	M	SD
교환적 권위	19.3	5.6	17.9	4.5	18.6	5.1
역량적 권위	21.2	2.6	21.5	2.5	21.4	2.5
일체적 권위	24.6	2.8	25.1	2.5	24.9	2.7
합법적 권위	23.7	4.4	22.6	5.3	23.1	4.9

〈표 3〉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권위지각의 One-way MANOVA

독립변인	Hotellings T	F
아동의 성	.037	3.52 **

**P<.01

〈표 4〉 부모권위에 대한 성별집단간의 동시신뢰구간 결과

부모권위	비교집단(남 / 여)
교환적 권위	- .319 , 3.097
역량적 권위	-1.164 , .564
일체적 권위	-1.399 , .399
합법적 권위	- .537 , 2.737

을 검증한 Box's M의 결과, $p>.01$ 이므로 독립변인 간의 동변량성이 있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여 기본 가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Hotellings T 검증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권위에 대한 남녀 아동의 차이는 $p<.01$ 수준에서 차이 있었다. 〈표 2〉에서 보면 아동들이 지각하는 부모권위는 일체적 권위가 가장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성차가 어느 종속변인에서 의의있게 나타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면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이 지각하는 각 차원별 부모권위는 차이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권위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녀 아동의 지각에 차이가 있으나 각 차원의 권위에 대해서는 남·녀 아동이 거의 유사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문제 2)의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One-way MANOVA를 실시하였다. 변인에 관한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고, 이를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표 5〉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에 관한 기본가정 검증

	변인	Value	P
Bartlett	부모양육행동	.29	.588
Box's M	아동의 성	64.55	.000

〈표 6〉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남·녀 아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		여		전체	
	M	SD	M	SD	M	SD
애정적 행동	32.2	6.0	32.6	5.1	32.6	5.6
동체적 행동	33.1	5.7	21.2	4.3	21.6	5.0

〈표 7〉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의 One-way MANOVA

독립변인	Pillai's T	F	P
아동의 성	.009	1.72	.18

〈표 9〉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의 상관관계

	애정적	통제적	교환적	역량적	일체적	합법적
애정적	1.00					
통제적	-.031	1.00				
교환적	-.084	.212***	1.00			
역량적	.296***	-.013	-.221***	1.00		
일체적	.387***	.049	-.099*	.443***	1.00	
합법적	.092*	.233***	.211***	.239***	.278***	1.00
M	32.45	21.63	18.56	21.35	24.85	23.10
SD	5.59	5.00	5.10	2.51	2.67	4.92

* P<.05 *** P<.001

들에서 다변인 변량분석의 기본가정에 위배되었다. 그러나 정상화를 도면을 산출한 결과는 검증되었다. 일부 가정이 위배되었다 하여도 영향을 덜 받고 검증력이 있는 Pillai's Trace 검증방법을 채택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6〉에 따르면 아동들은 부모의 애정적 행동 ($M=32.6$)을 통제적 행동 ($M=21.6$)보다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고, 여자아동은 애정적 행동을 남자아동은 통제적 행동을 반대성의 아동보다 더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이 지각한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문제 3)의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의 결과를 보면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역량적 권위, 일체적 권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합법적 권위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환적 권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교환적 권위와 합법적 권위에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량적 권위와 일체적 권위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행동과 부모권위가 상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권위와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아동은 평균 22.2의 지각을 보였고 여자아동은 평균 21.7의 지각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권위를 조사한 Bowerman과 Elder(196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합법적 권위에 대한 성차를 조사한 Damon(1977)과 Tisak(1986), 김경희(199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성차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애정을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한 Zussman(1978)과 Block(1983), Lynn(1974), 이수연(1985) 등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취하지 않고 양성성의 양육행동을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며, 학가족화와 남·녀를 구분없이 자녀를 적게 갖는 현사회의 경향이 부모양육행동의 성차를 발견할 수 없는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이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Edwards와 Brauburger (1973)와 Cartwright(1959), Elder(1963), Smith(1970)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경희 (1991)가 부모권위의 각 차원을 구분하여 정의한 것을 보면 교환적 권위는 심리적, 물리적 보상을 포함하고, 합법적 권위는 권위와 의무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방법과 관련이 있는 정의이다. 본 연구에서 통제적 행동의 정도가 교환적 권위와 합법적 권위에서 상관있게 나타난 것은 김경희가 제시한 부모권위차원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는 부모가 통제적 행동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때, 부모에게 권위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체적 권위와 역량적 권위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김경희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력을 형성하고 부모의 능력에 대한 존경이 짹트면 일체적 권위와 역량적 권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차원의 구분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관심을 쏟으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면 자연히 부모에게 권위가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권위는 단일 차원의 구인이 아니라 여러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다차원의 구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권위의 각 차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부모를 더 권위있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대부분의 아동들이 부모가 통

제적 행동보다 애정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은 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교환적 권위와 합법적 권위는 부모의 통제적 행동과 관계가 있었고, 일체적 권위와 역량적 권위는 부모의 애정적 행동과 관계가 있었다.

【참고문헌】

- 1) 공인숙.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학회지*, 10(1), 64-78. 1978.
- 2) 김경희. 아동의 부모권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Damon의 권위 개념단계에 따른 분석. *아동학회지*, 11 (10), 15-28. 1990.
- 3) 김경희. 부모권위척도 개발 연구. *아동연구*, 6, 81-97. 1991.
- 4) 김경희. 부모권위척도와 준거변인의 관계분석. *아동학회지*, 12(2). 1991.
- 5) 오성심, 이종승.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노우트* 1(1). 1982.
- 6) 유안진. 가정교육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육개발*, 3(3). 1981.
- 7) 이수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원행동에 관한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8) 한종혜.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9) 차재호, 이예영. 아들과 딸의 남성-여성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2 (1), 30-35. 1974.
- 10) Baldwin, A. L.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1955.
- 11) Baldwin, A. A. *Patterns of parent behavior. Psychological Monographs*. 1945.
- 12) Baumrind, D.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S. D. Ricks (Ed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1973.
- 13) Becker, W.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 of

-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964.
- 14) Blocker, J. H.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1983.
- 15) Elder, G. H. Parental Power legitimization and its effect on the adolescent. *Sociometry*, 26, 50-65. 1963.
- 16) Cartwright, D. *Studies in Social Power*. 1959.
- 17) Damon, W.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1977.
- 18) Edwards, J. N., & Brauburger, M. B. Exchange and parent-youth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101-107. 1973.
- 19) Lynn, D. B. *The father : His role in child development*. Califonea : Brooks cole. 1974.
- 20) Maccoby, E. E., & Jacklin, C. N.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1974.
- 21) McDonald, G. W. Determinants of Adolescent Percep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Power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7-770. 1979.
- 22) Peterson, C. W., & Rollins, D. C. Parent Child Socialization.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7.
- 23) Richer, S. The Economics of Child Rea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462-466. 1968.
- 24) Toe, A., & Siegelman, M. A Parent Child Relations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34, 355-369. 1963.
- 25) Rohner, R. P., & Rohner, E. C.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 Cross Cultural Codes. *Ethnology*, 20, 245-260. 1981.
- 26) Rohner, R. P. *The Warmth Dimension*. 1986.
- 27) Rollins, B. C., & Bahr, S. J. A theory of power relationships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619-627. 1976.
- 28) Schaefer, E. S.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1965.
- 29) Smith, T. E. Foundations of Parental Influence upon Adolescents : An Application of Social Power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860-873. 1970.
- 30) Symonds, P. M.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 31) Tisak, M. S. Children'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166-176. 1986.
- 32) White, R. W. Motivation reconsidered :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1959.
- 33) Zussman, J. U. Relationship of Demographic Factors to Parental Discipline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645-686. 1978.